

사람의 계명 - 최종 확인사살!

- 읽을 말씀 빌 1:3-6
- 주요 내용

지난 시간까지 칼빈주의자들이 오랫동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의 증거라고 착각했던 구절들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궁극적인 구원을 확신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구절들이 실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전 1:8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빌 1:6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살전 5:24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구절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이나 거룩이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며, 그 교회들의 모범적인 장점들을 보고 바울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확신한 것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1) 바울의 확신은 그 교회 성도들의 상태에 근거한 것이다!

이 구절들은 구원받은 모든 자가 반드시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구절들 전에 나오는 말씀들(고전 1:4-7, 빌 1:3-5, 살전 1:2-1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믿음에 따르는 순종과 사랑과 열매를 보고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들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확신의 근거가 단지 구원받은 것에 있지 않고 그 이상의 것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교회의 경우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중에 견고하게 된 것’ 뿐 아니라 ‘그들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에 근거한 확신이고, 빌립보교회의 경우 바울의 선교에 물심양면 동참한 것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신자의 궁극적인 구원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다른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그런 확신을 갖지 않았다!

고린도교회는 주로 분열과 은사 사용에 있어서의 무질서가 문제였지만, 구원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고전 3:1-3) 그들의 궁극적인 구원에 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고전 1:8).

그러나 복음에 대한 왜곡과 미혹은 이것들과 다릅니다. 복음은 가장 중요한 진리이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바울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택하셨습니다(롬 1:1). 바울은 수많은 계시를 받았고,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에 대한 계시였습니다(롬 16:25-27, 갈 1:11-12).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가장 귀히 여기고 복음 전파에 올인했습니다(롬 1:14-15, 고전 1:17, 행 20:24).

복음은 “생명의 말씀” 혹은 “영생의 말씀”으로 영혼의 사활이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초대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 베드로의 외식을 정면으로 비판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이 복음을 훼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갈 2:14). 어느 시대나 마귀가 가장 공격한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면 교회 안에서 다수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일에 베드로를 사용했듯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 루터와 칼빈의 오류를 지적한 것은 조금도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갈라디아교회의 문제는 이토록 중요한 복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갈 1:6, 3:1). 때문에 갈라디아서에는 그들의 궁극적인 구원을 온전히 확신하는 구절이 없고, 그 반대의 경고들만 있습니다(4:10-11, 5:13-15, 6:7-8). 그러므로 빌립보서를 비롯한 몇몇 곳에 그 교회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을 확신하는 구절들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이 확실하다고 믿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이 진짜 구원받은 자들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4:8-9, 13-15). 만약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면 그런 문제들이 있든 말든 갈라디아서에도 궁극적

인 구원을 확신하는 성구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구절들은 없고 도리어 반대되는 구절만 있습니다. 이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3) 그 성구들이 나오는 책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있다!

성경에는 궁극적인 구원을 확신하는 구절들(고전 1:8, 빌1:6, 살전 5:24) 이 있는 바로 그 책에, 직간접적으로 구원받은 자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고전 9:27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다.”

빌 2:12-16 “...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살전 5:6-9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

이것은 궁극적인 구원을 확신하는 구절이 있더라도 버림받을 수 있고, 현재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에게도 버림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존 웨슬리, 디 엘 무디, 썬다 싱은 물론이고 위대한 복음전도자 찰스 피니 역시 구원받은 자도 버림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없다고 믿었던 케네스 해긴 목사님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셨습니다. 또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윤 박사님을 비롯해서 이한수, 양용의, 길성남, 권연경, 최갑종 교수님 등 장로교 배경의 최고의 학자들도 이구동성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시고, 이 진리에 입각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진리가 있지만, 복음과 견인의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복음은 참 신자가 되느냐 거짓 신자가 되느냐를, 견인의 교리는 궁극적인 구원을 받느냐 버림받느냐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리즈 설교는 루터가 주장한 “오직 믿음” 과 칼빈이 주장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라는 사람의 계명이 참 진리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참 진리를 전한다고 모두 받아들이는 것은 아님

니다. 그러므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 하리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응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교 끝에 하려고 아껴두었던 김동욱 목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목사님은 성경의 인물들처럼 신기한 기도응답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교회로 옮기는 문제를 놓고 기도 할 때 세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교회가 예수님의 생각의 중심부를 차지하는 특별한 교회임을,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부를 차지하는 특별한 교회임을, 세 번째는 진리회복에 있어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비진리와 싸우며 나아가는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 교회임을 알게 해주시는 꿈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부에 사랑하는교회가 있는 이유는 진리회복의 중요성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의 사명은 진리회복을 통한 종교개혁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진리회복)와 사역(삼중사역)을 철두철미하게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그중 진리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어주신 것입니다. 바른 진리를 전하는 것이 목숨을 건 전쟁인 이유는, 단지 설교를 잘하면 교회가 부흥하지만 교리보다 더 바르게 전하면 박해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보면, 루터나 칼빈의 나팔수는 많으나 성경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나팔수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나팔수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참 복음과 진리가 땅끝까지 퍼져나가 교회들이 참 교회가 되어 초대교회처럼 불신자들에게 칭송받고, 나아가서 허다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 나눔과 적용

성경의 수많은 진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구원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복음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알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돌아보고, 어떤 핍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참 복음과 바른 진리의 나팔수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을 나누어 봅시다.